

광주시, '착한 소비' 광주공공배달앱 매출액 134억 돌파

출시 1년 만에 52만2천700건 주문...가맹점 7천500여 곳 달해
민간 앱들보다 저렴한 수수료 강점...광주시, 정책지원 등 확대

광주에서 운영하는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프오가 출시 1여년 만에 누적거래액 134억 원을 기록하는 등 '착한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프오는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완화와 매출증대를 위해 2021년 7월에 출시

한 배달서비스로 지난 1년간 가맹점 7500여 곳, 누적거래 52만2700여 건을 기록하며 지역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은 지난해 1월 대비 6천300개소가 신규 입점했으며, 누적 매출액은 134억원으로 지역 소

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민간 배달 앱사 중개수수료(6.8~12.5%) 대비 저렴한 중개수수료(2%)로 수수료 절감액(4.8~10.5%)이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광주시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는 또한 소상공인들의 배달

대행 수수료 비용부담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가맹점주 배달수수료 지원, 가맹점 현장매니저 운영 등 소상공인 혜택을 강화한 정책을 시행하며 가맹점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즉시 할인,페이백, 무료 배달, 프랜차이즈 제휴 할인, 대체 불가 토큰(NFT)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 제공하고 있으며 더불어 ▲청년·청소년 대상 영상

공모전 개최 ▲소문내기 이벤트, 릴레이 6행시 등 이용자와 소통하는 온라인 홍보 및 전광판 광고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지역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시민들의 착한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프오 전통시장 장보기 운영시 장 확대, 가맹점배달수수료 및 가맹점 대상 쿠폰발행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비자 혜택 강화, 시민 참여형 이벤트 추진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환 시 경제창업실장은 "광주공공배달앱(위메프오)은 시민들의 '착한 소비',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을 살리는 '착한 소비'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유빈기자

현대자동차, '현대 비전 컨퍼런스' 개최

해외 대학 박사 과정 인재 국내초청 채용 행사

현대자동차가 해외 우수 대학의 글로벌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해외 우수 대학 박사 과정 인재를 대상으로 '현대 비전 컨퍼런스(Hyundai Vision Conference)'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 비전 컨퍼런스는 현대차가 최초로 해외 대학 박사과정 인재들을 국내로 초청해 실시한 글로벌 채용행사로, 총 12개국에 달하는 다양한 국적의 북미·유럽 우수 대학의 미래핵심 기술 분야(AI, AAM, 자율주행, 로봇틱스, 친환경) 박사 과정 인재 및 해당 분야의 현대차 임직원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차는 이번 행사에 앞서 북미 주요대학을 직접 방문해 설명회와 직무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원자를 모집했고 연구분야 적합성 및 개인 커리어 비전 등을 고려해서 참가자를 선정했다.

지난 3일에는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현대차 대표이사 장재훈 사장과 AAM

본부장 신재원 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현대차에 재직중인 각 분야별 임원급 기술 리더들과 실무진들의 비전 및 전략 발표가 진행됐다.

아울러 참가자들과 부서별 직원들 간의 채용 질의응답과 사전에 선정된 각 분야별 참가자가 본인의 연구분야와 성과에 대해 소개하고 공

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 4일에는 현대차 기술 체험을 테마로 참가자들이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방문해 ▲미래 모빌리티 컨셉 모델 ▲제네시스 사운드 아키텍처 ▲수소트럭 VR 등 미래 신기술을 체험했고 이어서 현대차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현대모터스튜디오도 견학했다.

더불어 현대차는 5일에 별도 희

망자에 한해서 현대차 의왕연구소에 위치한 로봇틱스랩 투어도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MIT 박사 과정 브래디 해먼드(Brady Hammond)는 "현대차 덕분에 세계 각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두에 있는 현대차의 경영진 및 실무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현대자동차가 해외 우수 대학의 글로벌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해외 우수 대학 박사 과정 인재를 대상으로 '현대 비전 컨퍼런스(Hyundai Vision Conference)'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제공

전남, 한중 청소년 제작 영상으로 소통

중 산시성과 '국제교류 행사'서 관심사 공유

전남도와 자매결연 도시 중국 산시성은 최근 비대면 '한중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를 펼쳐 양 지역 청소년의 상호 문화 이해도와 국제적 감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재)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청소년이 전남도와 산시성을 상호방문해 가정 체험(홈스테이)하는 형태로 진행했으나, 코로나19로 올해 3년 만에 온라인을 통해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양국 청소년 62명이 전통문화, 지역관광, 포레스트 등 다양한 주제로 직접 제작한 '숏폼 콘텐츠 영상'을 소개·감상하면서 소감을 나누고, 취미활동과 좋아하는 가수 등 또래의 관심사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가 됐다.

숏폼 콘텐츠(short-form contents)는 짧은 시간에 핵심만 빠르게 보여주는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엠지(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전남도는 '한중 청소년 숏폼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전남 99명과 산시성 128명이 참가했다.

심사 결과, 낭만이 가득한 도시 목

포를 소개하는 영상과 직접 노래로 산시성의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수상 팀에겐 지난 2일 열린 '전남도-산시성 자매결연 5주년 기념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직접 상장을 수여했다.

전남도는 청소년들의 참신하고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숏폼 콘텐츠 영상을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의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 A군은 "비대면으로나마 산시성의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었고, 산시성 청소년들이 만든 영상에서 이색적인 배경과 문화를 접하며 교류지역에 대해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됐다"며 "다음에는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전남도와 산시성의 우애를 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중국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중국 저장성·장시성 청소년과 국제교류도 계획하고 있다.

/서용운 기자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7월 OPEN

39층 새로운
컬처라이프의 중심.

완벽한 문화생활 인프라에서 새로운 프리미엄을 누리다!

중흥S-클래스 문화전당 & 층장
[시공예정사 : 중흥토건]

주택전시관 :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개로 91

84㎡A·B, 113㎡

문의 062. 351.9999

시행 (가칭)The50센트럴 금동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코리아신탁(주) 업무대행사 데에이치산업개발



※ 상기 부동산은 사업승인 도장을 바탕으로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1차로 CG(건축)로 설계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구 디자인, 조경사계, 외관, 층형, 층고, 외부색 및 마감, 분양계획, 시공을 통괄 위하는 설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아파트는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